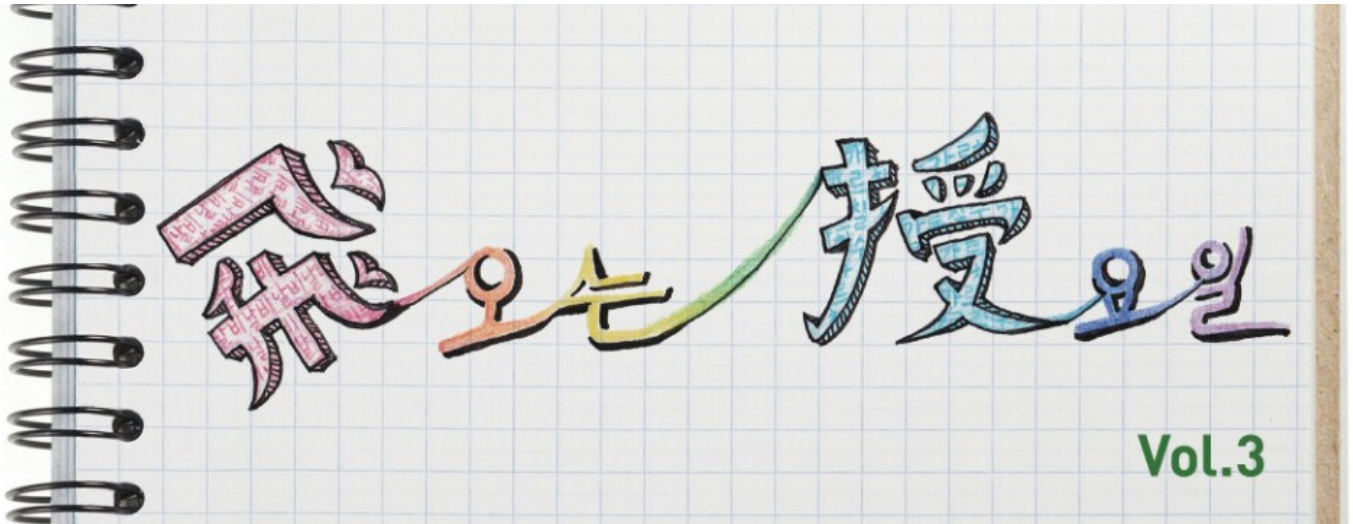




스물세번째 이야기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인』 릴레이 기고 - 그리스도인과 장애인

그리스도인과 장애인

-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

1. 장애인이란?



온누리 발달장애인 청소년 부서인 '사랑부'에서 사역을 하는 이유로 비수팀으로부터 '그리스도인과 장애인'에 관한 글을 써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장애인'하면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거나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의 범주에 발달장애인을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통계청(2017)에 의하면 전국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25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인구대비 5%에 그치지만 세대 수로 따지면 20%에 이른다고 볼 수 있고, 다섯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장애인 가족을 둔 셈이다. 적지 않은 비율이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꼭 등록된 장애인뿐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녹록하지도 않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가며 살아가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된 장애인.

2. 왜 그리스도인과 장애인??

그렇다면 왜 장애인을 굳이 그리스도인과 연결해 생각해봐야 하는지 어렵듯이 여러 생각들이 떠오를 것 같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 이 사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닌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일뿐이다. 그 길에서는 반드시 장애인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장애인을 위해 훨씬 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장애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대다수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내용들 속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만나신 사람들을 열거해보기만 해도 장애인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과 장애인은 각별한 사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걷고자 한다면 비록 장애인들을 예수님처럼 치료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3.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장애인의 의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장애인’이 다가오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발달장애인 사역에 몸담아오다 보니 봉사자들, 혹은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개인적으로도 사랑부 교사로 섬긴 지 얼마 안 되었을 당시에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던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결국에 ‘장애인’과 ‘나’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오십 보 백 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사랑부에 속해 있는 학생들을 돌보면서 말이 통하지도 않고 말을 따르지도 않고 주위를 살피지도 않는 행동들을 자주 보게 된다. 당연히 그러한 행동들을 애써 고쳐보려고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저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의 본 모습이든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 깨달음은 강도와 내용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들은 단지 ‘영적 장애’를 겪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있다면 그 ‘영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 ‘일상적 장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차이 없는 그저 동일한 ‘장애’일 뿐이다. 어쩌면 영적 장애가 오히려 더 심각한 장애일지도 모른다. 그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감사하게도 ‘나’의 장애를 깨닫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인’들과 더 함께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기도 한다.



4. 그럼??

그렇다면, ‘장애인’은 단지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다는 말인가? 물론 그 점을 강조할 필요도 있지만 그들의 존재가, 그들과 함께함이 단지 ‘깨달음’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다. 그들의 존재는 이 사회를 향한 경종이고 나아가 그 자체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나아갈 때에 이 사회는 성화된 사회로, 영화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감히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장애인과 함께 걸어야 할 길은 어떠한 길일까? 이 길은 바로 우리들이 그토록 찾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길은 간단하거나 금세 끝나는 길은 아닌 듯하다. 조금은 투박하지만, 그리고 가야 할 길이 멀고 멀지만, 장애인 이해를 돕고자 장애인과 관련된 우리들의 사회를 개인적인 단견으로 나누어 보았다.

가. 장애인을 장애인으로만 부르는 사회. 이런 사회는 아직 미숙하고 나아가 폭력적인 사회라고까지 말하고 싶다. 아직 우리들은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장애인’이라고 부를 때 그들과 우리를 분리하고 심지어 격리하기

도 한다. 물론 그들은 도움의 대상이고 보호의 대상이다. 돕는 손길과 기꺼이 섬기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그들을 ‘장애인’이라 부르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회가 그렇듯이, 그들은 고쳐져야 할 사람들이요 혜택을 받아야만 될 사람이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나. 장애인이 사라지는 사회. 그들이 치료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물론 장애 자체도 치료되어가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치유와 치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님을!!!) ‘장애인’으로 불리기보다는 그저 개개인의 이름이 불리고 서로 함께 도와가며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성화’되어 가는 사회, 장애인이 사라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사회에서는 보호의 대상이 오히려 보호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된다. 소위 ‘자폐장애인’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사회라면 바로 그 사회가 ‘자폐사회’인 것이다. 장애인이 장애인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장애사회’인 것이다. 미약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장애인이 사라지는 사회’를 향한 움직임이 조금씩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다해 방향을 잡아가고 역량을 다하기를 소망해본다.



다. 장애가 사라진 사회. 그리스도인이기에 이제 말할 수 있다. ‘장애’가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사회가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장애인사역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봉사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뉘지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다. “결국 우리들은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사랑부 친구들이나 교사들이나 부모들이나 모두 함께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을 우리는 감히 그려본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믿음의 씨앗을 뿌려본다.

‘장애인’과 더불어 ‘장애’가 사라지는 사회는 소망이 있다. 사랑이 있다. 아직 ‘장애가 사라진 사회’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이들의 ‘장애’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고 있음을 잘 새겨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한다.

[글쓴이 김종영 목사]



양재 햇불트리니티 신대원에서 신학을 하고 2015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2001년 온누리 교회에서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마치면서 사랑부 교사로, 갈라디아서 학생으로, 2010년 BEE 사역자로 헌신하면서 자연스럽게 신학을 하게 되었다. 2012년 11월 이후 만 6년 동안 서빙고 사랑부에서 파트사역을 담당하며 인생 후반전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족은 수학교사인 아내 한혜정 사모와 아들 김현수(서울신대1)이며 교회 가까이 이촌동에 살고 있다.

BEE의 보석 찾기

7. 이용구 집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1981년 봄, 최루탄가스 속에서 신학과 대학생에게 물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건 맞냐?”

2010년 양재 캠퍼스, BEE 브로셔를 주시는 고명신 권사님께 물었다. “BEE는 뭐하는 곳인가요?”

1996년에 온누리교회로, 2012년에 온비아 과정으로 인도한 아내에 의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갖게 되었다.

2002년부터 공동체에서 순장과 총무, 다락방장, 도곡 교육관에서 새가족 사역팀장 그리고 서빙고에서 일대일 사역 공동체 팀장 등으로 섬겼는데 2016년경, 이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섬길 바에야 오히려 돈 버는 일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멈추게 되었다. 이후 FTS과정에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은 사역은 개인의 영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직장은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배움의 열정도 가득하여 지금 방통대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가족은 교회와 BEE로 인도해 놓고 지금은 조호영 목사님의 여성사역 도우미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아내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딸(건축학과 5학년, 식품공학과 4학년)이 있다. 큰 딸은 노래를, 둘째 딸은 춤을 좋아하고 학교에서 몇 차례 소규모 공연도 했다. ‘K-POP’ 10위에 오르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취미를 가진 두 딸이다.

8. BEE보석을 찾아요~

*다음 주 보석 찾기는 누구일까요?

중국A테이블에서 함께 기도하며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모임에서 싱어로 섬기는 목소리가 크고 아름다운 집사님이십니다! 오래 전부터 말씀 사역자로 섬기는 남편으로 인해 BEE모임에 오게 되었으며 남편 사랑이 가득하신 집사님이 이번 주도 환한 웃음으로 살롬을 전하고 있어요. 앗! 바로 옆에 계신 분이네요!!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 ‘그리스도인 공동체(BEE KOREA의 구성원), 복음에 충실한 공동체(사명을 위한 덕목), 사역의 확대와 확장(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신실하고 충성된 사역(서로를 위한 격려와 다짐)’을 위해!
2. 드디어 단풍 물드는 가을날~ BEE가을 소풍이 3일 뒤로 다가왔습니다. 20일 기도 모임 후 아침 식사를 마치고 기도 테이블 식구들과 오손도손 함께 오세요~~ 10시에 수원에서 뵈겠습니다.
3. BEE를 시작하는 온비아 식구들과 함께 청주 성지로 떠나는 수련회(10.27, 토) 아침 9시 출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순교로 세워진 교회와 성경학교를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로 주신 믿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4. ‘BEE WORLD CONFERENCE (2019.10.2-9)’가 비엔나에서 있습니다. 내년에 있는 행사지만 먼 곳(?)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지금부터 천천히 기도하며 준비해요!
5. ‘MISSION PERSPECTIVE’ 세미나가 11월 26일 월요일 저녁 7시에 12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BEE판 심화 ‘WHY MISSION’입니다. BEE식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이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